

□0617(토)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기념일□

+ 독서 : 이사야서 61, 9-11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리라.>

내 백성의 9 후손은 민족들 사이에, 내 백성의 자손은 겨레들 가운데에 널리 알려져 그들을 보는 자들은 모두 그들이 주님께 복 받은 종족임을 알게 되리라. 10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은 나의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니 신랑이 관을 쓰듯 신부가 패물로 단장 하듯 그분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로움의 겹옷을 둘러 주셨기 때문이다. 11 땅이 새순을 돋아나게 하고 정원이 싹을 솟아나게 하듯 주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민족들 앞에 의로움과 찬미가 솟아나게 하시리라.

* 화답송 1사무 2, 1, 4-5, 6-7, 8⁷느르(◎ 1⁷ 참조)

◎ **저의 구원자 주님 안에서 제 마음 기뻐 뛰나이다.**

○ 주님 안에서 제 마음이 기뻐 뛰고, 주님 안에서 제 얼굴을 높이 드나이다. 당신의 구원을 기뻐하기에, 제 입은 원수들을 비웃나이다. ◎

○ 힘센 용사들의 활은 부러지고, 비틀거리던 이들은 힘차게 일어선다. 배부른 자들은 양식을 얻으려 품을 팔고, 배고픈 이들은 더는 굶주리지 않는다. 아이 못낳던 여자는 일곱을 낳고, 아들 많은 여자는 홀로 시들어 간다. ◎

○ 주님은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며, 저승으로 내리기도 저승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주님은 가난하게도 가멸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신다. ◎

○ 주님은 비천한 이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가난한 이를 잣더미에서 들어 높이시어, 존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히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

* 복음 환호송 루카 2, 19 참조

◎ **알렐루야. ○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당신은 하느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나이다. ◎ 알렐루야.**

+ 복음 : 루카 2, 41-51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41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42 예수님이 열두 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43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44 일행 가운데에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45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46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47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48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49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50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51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① 이사야서 제61장

구원의 기쁜 소식

1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 하느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 주며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2 주님의 은혜의 해, 우리 하느님의 응보의 날을 선포하고 슬퍼하는 이들을 모두 위로하게 하셨다. 3 시온에서 슬퍼하는 이들에게 재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맥 풀린 냇 대신 축제의 옷을 주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정의의 참나무’ ‘당신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 라 부르도록 하셨다. 4 그들은 옛 폐허들을 복구하고 오랫동안 황폐한 곳들을 다시 일으키리라. 폐허가 된 도시들, 대대로 황폐한 곳들을 새로 세우리라. 5 낮은 사람들이 나서서 너희의 양 떼를 치고 이방인들이 너희의 밭과 포도원에서 일하리라. 6 너희는 ‘주님의 사제들’ 이라 불리고 ‘우리 하느님의 시종들’ 이라 일컬어지리라. 너희는 민족들의 재물을 향유하고 그들의 영화를 이어받으리라. 7 그들은 수치를 갑절로 받았고 치욕과 수모가 그들의 몫이었기에 자기네 땅에서 재산을 갑절로 차지하고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것이 되리라. 8 나 주님은 올바름을 사랑하고 불의한 수탈을 미워한다. 나는 그들에게 성실히 보상을 주고 그들과 영원한 계약을 맺어 주리라.

■■■ 9 그들의 후손은 민족들 사이에, 그들의 자손은 겨레들 가운데에 널리 알려져 그들을 보는 자들은 모두 그들이 주님께 복 받은 종족임을 알게 되리라. 10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은 나의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니 신랑이 관을 쓰듯 신부가 패물로 단장하듯 그분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로움의 겹옷을 둘러 주셨기 때문이다. 11 땅이 새순을 돋아나게 하고 정원이 싹을 솟아나게 하듯 주 하느님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 의로움과 찬미가 솟아나게 하시리라. ■■■

□시 편□

1-2,

146-150

① 3-41, ② 42-72, ③ 73-89, ④ 90-106, ⑤ 107-145,

② 사무엘기 상권 제02장

한나의 노래

■■■ 1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였다. “제 마음이 주님 안에서 기뻐 뛰고 제 이마가 주님 안에서 높이 들립니다. 제 입이 원수들을 비웃으니 제가 당신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2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이 없습니다. 당신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하느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3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고 거만한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마라. 주님은 정녕 모든 것을 아시는 하느님이시며 사람의 행실을 저울질하시는 분이시다. 4 용사들의 활은 부러지고 비틀거리는 이들은 힘으로 허리를 동여맨다. 5 배부른 자들은 양식을 얻으려 품을 팔고 배고픈 이들은 다시는 일할 필요가 없다. 아이 못났던 여자는 일곱을 낳고 아들 많은 여자는 홀로 시들어 간다. 6 주님은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분, 저승에 내리기도 올리기도 하신다. 7 주님은 가난하게도 가멸게도 하시는 분,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신다. 8 가난한 이를 먼지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이를 거름 더미에서 일으키시어 귀인들과 한자리에 앉히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땅의 기둥들은 주님의 것이고 그분께서 세상을 그 위에 세우셨기 때문이다. ■■■

9 주님께서는 당신께 충실한 이들의 발걸음은 지켜 주시지만 악한 자들은 어둠 속에서 멸망하리라. 사람이 제힘으로는 강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10 주님이신 그분께 맞서는 자들은 깨어진다.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천둥으로 호령하신다.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당신 임금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부음받은이의 뿔을 높이신다.”

③④ 루카 복음서 제02장

예수님의 탄생 (마태 1,18-25)

1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2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실시되었다. 3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4 요셉도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5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6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 날이 되어, 7 첫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다

8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 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9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10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11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12 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13 그때에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목자들이 예수님을 뵈다

15 천사들이 하늘로 떠나가자 목자들은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신 그 일,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봅시다.**” 16 그리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17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 주었다. 18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19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곱곰이 되새겼다. 20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할례와 작명

21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 준 이름이었다.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봉헌하다

22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그들은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23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 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24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시메온과 한나의 예언

25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

다리는 이었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26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뵈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 주셨다. 27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28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29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30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31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32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33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34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35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뚫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36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프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일곱 해를 살고서는, 37 여든네 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38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아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39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래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예수님의 유년시절

40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예수님의 소년 시절

■ 41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42 예수님이 열두 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43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44 일행 가운데에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45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46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47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48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애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다.” 하자, 49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50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51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52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

④ 마리아 공경의 필요성

교회의 신비 안에서 어머니와 동정녀로서의 탁월하고 독자적인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뛰어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마리아께서는 모든 천사와 사람들 위에 들어 높임을 받으셨으며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교회 안에서 특별한 공경을 받고 계신다. 특히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뿐 아니라 평생 동정녀이시며 원죄 없이 잉태되셨고 죄에 물들지 전혀 없이 영혼과 육신이 함께 하늘로 들어 올려 진 분이로서 하느님의 은총을 가장 충만히 입으신 분이시다. 이 네 가지 사실은 마리아께서 누리시는 영광스런 특전인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마리아를 공경하는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분께 나는 과연 마땅한 공경을 드리고 있는가?

①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우리가 마리아를 모든 성인들 위에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마리아 자신 때문이기 보다 마리아께서 하느님의 어머니시라는 사실 때문이다. 마리아께서 낳으신 이는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참 하느님으로서, 즉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 역사 안으로 들어오실 때 길이 되셨다. 성삼위의 제2위이신 성자께서는 그 위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그대로 결합하여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는 첫 순간부터 육화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육신과 영혼을 지닌 채 태어나셨고, 한 사람을 수태하여 낳은 여인이 바로 그 사람의 어머니인 것처럼 하나님이 마리아에게서 인간 육체를 받으셨기에 마리아께서는 하나님이 어머니가 되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성부께로부터 낳음 받은 것이지만 마리아께서는 예수님을 잉태하셨고 이 세상에 낳으심으로써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셨고 또한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셨다.

마리아께 대하여 ‘하느님을 낳은 자’, ‘하느님의 어머니(Theotokos)’ 라는 명칭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3세기 초에 로마에 살았던 성 히폴리투스였다. 그리고 431년 에페소 공의회는, 알렉산드리아의 성 치릴로가 당시 그리스도의 신성을 반대하던 이단 네스토리우스에게 써 보낸 다음과 같은 내용을 채택하면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장엄하게 선포하였다. “그리스도가 거룩한 동정녀에게서 보통 사람으로 먼저 태어나고서 그 다음에 말씀이 그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그리스도는 모태에 들어있으면서 육체에 따른 출생을 하였으므로 당신 육체를 가지고 출생하였다. 그래서 교부들은 거룩한 동정녀를 ‘하느님의 어머니’ 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② 평생 동정하신 마리아

마리아가 오로지 성령의 힘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잉태하였다는 것은 가톨릭 교회의 신앙교리이다. 복음에서 그리스도는 성령의 힘에 잉태되었고 성령은 인간 아버지의 관여함이 없이 마리아를 “덜어주었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루카 1,35). 교부들은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그리스도를 잉태했다고 확실히 증언하면서 초기의 신경(信經) 문항으로써 이를 표현하였다. 교회는 또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으실 때에도 동정을 잃지 않으셨다고 선포한다. “마리아는 동정성을 상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잉태하셨던 것처럼, 동정성을 잃지 않고서 그분을 낳으셨다. ... 그것은 기적적인 분만이었다.” 하느님께서 인간의 몸을 빌려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분의 탄생은 이처럼 예외적인 탄생이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다. “잉태한 동정녀, 분만한 동정녀, 아기 예수를 갖고 있던 동정녀, 아기를 낳으신 동정녀는 영원한 동정녀이시다! 오 인간이여, 무엇 때문에 이런 것에 놀라는가? 하느님이 사람이 되실 때라면 이 방법으로 나시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분이 마리아의 바탕을 지으신 것이다.”

마리아께서 당신 전 생애를 통해서 동정녀로 계셨다는 진리는 교회가 아주 처음부터 가르쳐 온 신앙교리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으시기 전에도, 도중에도, 낳으신 후에도 동정녀이셨다는 점에서 이미 4세기에 마리아를 일컬어 “평생 동정녀” 라는 명칭이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마리아의 영원한 동정성에 대한 믿음은 431년 에페소 공의회 시대에 분명히 표현되었고, 1555년 트리엔트 공의회 기간 중 교황 바오로 4세는 마리아의 동정성에 관한 전통적 신앙의 교리를 재확인하였으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마리아를 ‘평생 동정녀’ (교회헌장 52항)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마리아의 동정성에 대한 이러한 믿음은 동정 그 자체보다도 다음 두 가지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하겠다. 즉 마리아께서 낳으신 아들은 인간 아버지가 없고 하느님만이 그분의 아버지시라는 점이며, 동정녀로서 하느님을 낳으신 것은 강생을 통해서 하느님이 진정으로 세상에 들어오신 것을 증명한다는 점이다. 즉 하느님께서 마리아에게서 인간 육체를 받으셨다는 사실이다.

③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1854년 교황 비오 9세는 마리아의 원죄없는 잉태를 모든 신앙인이 믿어야 할 계시 진리라고하며 이렇게 선포하였다.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는 잉태 첫 순간에, 전능하신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과 특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전된 공로에 비추어 원죄의 아무 흔적도 받지 않도록 보호되셨다.” 마리아 역시도 아담의 한 후손이므로 당연히 원죄의 죄과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하느님의 특별한 결의는 마리아가 낳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전된 공로를 마리아가 미리 입어(선행구속) 그를 원죄에 물들지 않도록 하셨다.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마리아께서는 당신이 낳으실 하느님의 아들의 구속공로를 미리 입어 원죄 없이 잉태되는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과 특권을 입으신 것이다.

이러한 진리를 마리아께서는 또한 직접 인류에게 계시해주셨다. 1830년 7월 18일 프랑스 파리에 있는 사랑의 딸 수녀원의 카타리나 라브레 수녀에게 처음 발현하신 후 4개월이 지난 11월 27일 마리아께서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여, 당신께 의탁하는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라는 기도

문을 가르쳐주셨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마리아의 원죄없는 잉태가 믿을 교리로 아직 반포되지 않았던 때이다. 그리고 1854년 교황 비오 9세에 의해 원죄없는 잉태 교리가 반포된 지 4년 후인 1858년 프랑스 루르드에서 14세의 소녀 벨라델타에게 발현하신 마리아께서는 “나는 원죄없는 잉태이다.” 라고 하시며 교회의 가르침을 확인해주셨다.

20세기에 들어 마리아의 원죄없는 잉태에 관한 교리는 파티마를 통해 더욱 발전되어 나갔다. 1917년 파티마에 모습을 드러내신 마리아께서는 “그래. 히야친다와 프란치스코는 곧 데려가겠다. 그러나 너는 좀 더 세상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너를 통해 내가 세상에 더욱 알려지고 사랑받게 하고자 하신다. 그분은 나의 티 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이 세상에 불러 일으켜지기를 원하신다. 나의 티 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구원을 약속한다. 그 영혼들은 내가 하느님의 옥좌 앞에 놓아드린 꽃들처럼 하느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고 하시며 원죄에 물들이 없어 지극히 깨끗한 성심에 대한 신심을 세상에 전파하도록 요청하셨다.

④ 영혼과 육신이 함께 하늘로 들어 올려 지신 마리아

마리아께서는 지상생활을 끝낸 뒤 몸과 영혼을 그대로 지닌 채 하늘로 올림을 받으셨다. 죄에 물든 일이 없는 몸이기에 당신 아드님처럼 그의 몸도 무덤에 계시면서 죄가 세상으로 가져온 죽음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마리아를 원죄에서 보호하기 위해 미리 사용되었던 그 구속의 효험으로 마리아께서는 세말에 만민이 부활하기 전에 육체를 갖고 승천하셨다는 이러한 신심은 교회 안에 전해져 내려오는 매우 오래된 것이다. 5세기부터 동방 교회에서는 8월 15일에 성모 영면(永眠) 축일을 지냈다. 즉 마리아께서 주님 안에 잠드신 일을 축제로 지낸 것이다. 8세기 말엽에는 서방교회 전역에서도 그 축일을 지냈다. 여러 세기에 걸친 이러한 믿음과 신심이 절정을 이루어 1950년 11월 1일 교황 비오12세는 성모 승천 교리를 정식으로 정의하고 선포하였다. “원죄 없으신 천주의 모친 평생 동정 마리아께서 지상생활을 마치신 후에 영혼과 육신을 갖고서 천상 영광으로 올림을 받으셨다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계시된 교리임을 선언하고 선포하며 정의하는 바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도 “예수의 모친은 천상에서 이미 영혼과 육신으로 영광을 누리고 계심으로써, 후세에 완성된 교회의 모상이며 시작이 되신다” (교회헌장 68항)고 하면서 마리아께서 맡으신 특권과 각별한 은총을 재확인하였다. 실로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의 완전한 영광에 참여하고 계시며 우리도 또한 마리아처럼 그에 참여하도록 부름 받고 있다. 마리아께서는 교회와 인류가 장차 천국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희망의 모델이 되시며 확실한 희망의 표지로서 빛나고 계신다.

□06월 07월 공지 사항□

06월							07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01 일파정 예언서2	02	03 토요 신심							01 토요 신심
04	05 월요 성경	06	07	08	09	10 토요 신심	02	03 월요 성경	04	05	06 일파정 지혜문학	07	08 토요 신심
11	12 월요 성경	13	14	15	16	17 토요 신심	09	10 월요 성경	11	12	13	14	15 토요 신심
18	19 월요 성경	20	21	22 차약산	23	24 토요 신심	16	17 월요 성경	18	19	20	21	22 토요 신심
25	26 월요 성경	27	28	29	30		23/30	24/31 월요 성경	25	26	27	28	29 토요 신심

□2023년 07월 성경통독 일파정□

- 날짜 : 07월 06일(목)
- 시간 : 목요일 오후 1시 - 5시
- 장소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대강의실
- 내용 : 지혜문학(잠언, 욥기, 코헬렛, 집회서, 지혜서)
- 준비 : 월성 명찰, 미사보
- 지도 : 조창수 신부
- 회비 : 02만원 (월성 회원 01만원)
- 문의 : 010-7586-5425 문자

가톨릭 성경통독 아카데미□
가톨릭 영성수련 아카데미□
 010-8889-5425

□2023년 월요성경 회원모집□

- 기간 : 2023년 01월 02일(월) - 12월 25일(월)
- 시간 :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 3시, 온라인 라이브 동시 강의
- 내용 : 신구약 성경 전체
- 강의 : 조창수 신부
- 회비 : 06월 등록자 연회비 07만원 (우리은행 010.8889.5425 조창수)
- 신청 : ①회비 입금 - ②입금 후 문자 (010.8889.5425로 문자 ; 성명 세례명 본당) - ③수강 신청서 제출

가톨릭 성경통독 아카데미□
가톨릭 영성수련 아카데미□
 010-8889-5425